

거양해운

1분기 영업이익 180억원

거양해운(사장 박정원)의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179억9,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양해운은 지난 1/4분기 매출액이 855억 8,900만원, 경상이익이 201억100만원, 당기순이익이 201억100만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42.2% 증가했으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각각 돌아섰다.

고려해운

대표이사에 최영후 부사장 선임

고려해운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경영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향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5월21일부로 대표이사 부사장에 최영후 전무를 승진선임하고, 양건일 전무를 부사장으로, 전문준 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운은 2004년 5월25일 대표이사 이?취 임식을 거행하였다

최영후 대표이사 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후진양성과 젊은 세대로 업무를 이양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용단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회사와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함께 느낀다”며, “미력하지만, 선배들이 땀 흘려 이룩한 오늘을 생각하며 확립된 전통과 경영방침 하에서, 창립 50주년에 회사가 만인 앞에 선언한 내일의 회사로 발전할 수 있

는 여건조성에 임직원과 힘을 합쳐 사십없이 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해운은 지난 4월 28일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신조 컨테이너선박인 ‘KMTC PORT KELANG(포트켈랑)’ 호의 명명식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했다.

이번 선박은 지난 2002년 한진중공업에 발주한 것으로 지난 2월 27일 인도받은 ‘KMTC SHANGHAI(상하이)’ 호에 이은 2차선이다.

‘KMTC PORT KELANG’ 호는 길이 187.3m, 너비 27.6m, 항해 속력 21.5Knots의 1,860TEU 급 최신행 풀 컨테이너선으로 울산-부산-상하이-홍콩-포트켈랑-싱가포르-파시르구당-홍콩-상하이-울산 등을 운항한다.

이와 관련, 고려해운은 “최신 기술을 도입한 대형, 고성능 선박 ‘KMTC PORT KELANG’ 호를 인수해 기존 투입중인 용선선박을 대체함으로써 용선료 절감 및 운항 효율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해운은 또 “KMTC SHANGHAI호에 이어 이번엔 고성능 신조선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아시아 전문선사로의 자리 매김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해운

1/4분기 영업이익 606억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으로 사상최대치인 60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분기 대한해운의 매출액은 2,61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0.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9%나 급등했다. 경상이익은 826억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순이익 규모도 764억원에 달했다.

대한해운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68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영업이익은 놀랄만한 실적이다. 따라서 올해 실적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해운경기의 호조에 걸맞은 효과적인 영업전략으로 수혜를 극대화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해운시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2/4분기 들어서 예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동남아해운 ●●●

기획팀 영업전략기능 추가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은 기획팀에 영업전략 기능을 추가해 기획전략팀으로 변경하는 등 6월 1일부로 기획부문 조직의 강화를 단행한다.

동남아해운은 5월27일 기획 및 회계 담당임원을 신설하는 한편 기획팀을 기획전략팀으로, 영업전략팀을 마케팅팀으로 각각 팀명을 변경,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영업전략팀에서 담당해온 전략기능이 기획팀으로 옮겨오며 따라 향후 동사의 영업전략 수립에는 영업팀 차원을 넘어 기획전략팀이 적극 개입 또는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기존의 영업전략팀은 6월 1일부로 마케팅팀으로 바뀌며 팀장은 올초까지 자카르타 지점장을 맡아온 최성근 부장이 임명됐다.

새롭게 강화되는 기획전략팀의 담당임원은 그

동안 영업전략팀 임원을 지내온 김운식 이사가 맡게됐으며, 기획전략팀장에는 기획팀장으로 활약해온 강봉수 차장이 임명됐다.

한편, 신설된 회계담당 임원에는 고주빈 이사가 임명됐으며, 고 이사는 심사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범양상선 ●●●

1분기 영업이익 1,123억원

범양상선(사장 장진원)이 지난 1/4분기 1,12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범양상선에 따르면 1/4분기 매출액은 6,36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447억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23억원으로 전년동기 48억원보다 2,239.6%나 폭등했다. 이는 2003년 한해 영업이익 778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놀랄만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경상이익도 1,044억원을 기록, 전년의 174억원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반전됐다.

범양상선은 올초 영업이익 목표를 1,031억원으로 잡았으나 1/4분기에 이를 초과달성, 현재 올 목표치를 높여 재조정하고 있다.

범양상선 관계자는 “용선부문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이같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올 한해 실적은 창사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양선박 ●●●

1/4분기 영업이익 70억원

세양선박은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억원에 비해 775% 가량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매출액도 4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2억원보다 8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4분기 9억원에서 올 1/4분기에는 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양선박은 해운경기의 호조로 인한 운임의 상승, 대형선으로의 보유선대의 확장개편, 대형장기운송계약 등으로 이같은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급등한 벌크선 운임의 효과가 금년 1/4분기 실적부터 적용됐으며 부가가치 높은 철광석과 석탄 등 대형선위주로 사업을 전개한 것이 실적 개선에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체 매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원유수송사업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 해운운임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4분기와 금년 1/4분기에 다수의 장기운송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도 실적 개선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양선박 관계자는 “해운경기 호조로 인한 운임상승과 함께 장기운송 계약 확보 등에 힘입어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SK해운

1분기 영업이익 503억원

SK해운(사장 이정화)은 지난 1/4분기 매출액 4023억원, 매출이익 503억원, 영업이익 418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해운 관계자는 ‘유조선 부문을 비롯, 벌크선 및 석유제품운반선의 스팟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경상이익은 대규모 외화환산이익으로 800억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창립27주년 기념식 거행

한진해운(대표 최원표/www.hanjin.com)은 5월 14일 창립 27주년 기념일을 맞아 동사 임직원 및 해상직원에게 특별 표창을 시상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동사는 기업의 경쟁력과 인화단결은 가족 구성원의 사랑의 힘에서 나오며 효의 근본을 바탕으로 한 윤리 경영을 도모하고자 효성이 지극한 임직원에 대해 효행상을 시상하며 임직원 한명 한명의 성실하고 절약하는 습관은 어려운 여건 극복의 원동력 및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 알뜰상을 시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올해도 직원부부 중 효심이 지극한 2쌍의 부부와 평소 알뜰한 생활자세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 전직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3쌍의 부부에 대한 효행상과 알뜰상을 시상했다.

효행상 수상 주인공은 정비팀 김운택 부장 부부 및 한진포틀랜드호 서기철 갑판장과 부인인 김영자씨였으며, 알뜰상 수상의 주인공은 운항팀 조창수 과장 부인인 유윤경씨. 그리고 김성대 조기장과 부인인 이정숙씨, 한진무스카트호 고천학 갑판장과 부인인 양덕순씨 였음. 또한 창의상 및 봉사상에 대한 특별표창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 사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범 부부 및 직원을 시상하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인화단결은 가족 구성원의 사랑의 힘에서 나오며 계속적으로 시상 제도를 발전시켜 날로 각

박해지는 생활에 인간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표창 수상자 세부 내용]

○ 효행상

김윤택 부장은 부친이 고회가 되던 1999년도에 간경화 및 기관지 폐소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몸져 눕게 되자 부인 조혜진씨 스스로 맘머느리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부산에서 본가 김해로 이사 병상에 계시는 아버님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하루 24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정성껏 모시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고혈압/뇌출혈로 입원/퇴원이 반복되었으나 싫은 내색없이 묵묵히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

부인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을 화목하게 가구는 모습에 동네사람들 칭송이 자자하며 자녀들까지도 효심을 본받아서 조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습관화 되어 있는 등 효행심을 발휘하는 생활 방식이 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다.

○ 효행상

서기철 갑판장의 부인인 김영자씨는 82년 결혼 후 약 22년간 시부모님을 직접 봉양하여 마을에서는 정부 효행상 추천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며, 90년 시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1년 이상을 친딸 이상으로 투병 수발하며 가정 살림 또한 알뜰히 꾸려 나가는 등 효부로서 표상이 되어 남편이 안전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알뜰상

조창수 감독의 부인 유운경씨는 결혼 후 8년간 넉넉치 않은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대소사 일을 도맡아 화목하게 잘 처리하고 있으며 첫째

아들의 유아시절 심장병 치료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생활자세로 남편인 조창수 감독이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8여년간 몸에 배인 알뜰한 생활과 근검 절약을 통해서 작은 내집 마련의 꿈을 오늘까지 소중히 키워 왔으며 그 결실이 머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 알뜰상

김성대 조기장의 부인 이정숙씨는 달동네 셋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승선생활에 의한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어 자신도 봉제공장을 20여년 동안 다니며 가정생활을 꾸려 왔으며 1998년 시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이정숙 여사가 발벗고 나서서 헌신적인 간호와 도움으로 지금은 상당히 호전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 알뜰상

고천학 갑판장의 부인 양덕순 여사는 남편이 결혼 후 바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부인의 알뜰한 내조로 6년간의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남편이 승선기간동안 가정 및 가족간의 대소사는 혼자 도맡다시피 처리하는 한편, 20여년간을 고된 해녀 생활을 어물 노점상을 하면서 가정의 생활비는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남편의 수입은 전부 저축하여 1999년에는 아파트를 구입, 동네에서는 억척 아줌마로 통한다.

○ 창의상

최형주 3항사는 2003년 졸업하여 짧은 경력의 3항사임에도 불구하고 첫 승선 선박인 한진포틀랜드호 승무시 관습적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초임사관으로서는 상상하

기 어려운 15건의 제안을 출원했다.

출원 제안 중에는 “3항사 CHECK-LIST 기재 용지 개선”이라는 담당업무의 개선에서부터 “SAFETY EQUIPMENT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근간 협약 발효로 가장 관심이 큰 ISPS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업무에 대하여 개선점을 연구하고 있다.

○ 봉사상

봉사상을 수상한 김기천 조리장은 96년 입사 후 현재까지 성실한 업무자세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력으로 해상직원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메뉴를 개발하여 왔으며 야간 입출항시 및 업무 외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승무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야참을 챙겨주는 등 선내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발 기술을 습득하여 매 항차 승무원들의 머리를 정리해 주어 1달러씩 성금을 거둬 하선시에는 자원을 찾아 작은 금액이지만 성금을 기탁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오히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겸손한 직원이다.

현대상선 . . .

기업설명회(IR) 개최

현대상선(사장 노정익)이 올 매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조 5,540억원, 영업이익 목표를 102.9% 늘어난 5,850억원을 각각 잡았다.

현대상선은 5월 11일 오후 4시 한국증권거래소 신관 21층 국제대회의장에서 각 증권사 에널리스트, 주요 펀드매니저, 기관투자가, 주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기업설명회는 현대상선이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실적을 시현하면서 처음으로 갖는 것으로 주주가치를 중시하겠다는 경영정책의 전환점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은 지난 2~3년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2004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04년 연간 사업목표를 발표했다. 이후 각 영업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 노력과 해운시황 호조로 이번 1분기에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시현했다”며 “앞으로 제 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경영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주 가치 극대화에 주력해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번 국내 기업설명회 개최에 이어, 이달 말부터 싱가포르, 홍콩, 유럽을 잇는 해외 IR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국내외 IR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현대상선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1조 1,9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58억원으로 1,146% 급증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1,535억원, 당기순이익은 1,023억원을 각각 기록해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자산은 4조 2,428억원, 부채 3조 5,855억원, 자본 6,573억원을 기록해 부채비율은 545%로 전년말 보다 크게 개선됐다.

특히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발표된 현대상선의 올 한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조 5,540억원, 영업이익은 102.9% 늘어난 5,85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선이 이러한 연간 목표를 달성한다면 2004년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측은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해외영업력 강화, 해운시황 호조 등으로 지난 2~3년간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히고, “이번 기업설명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국내외 IR과 선박 투자 등 지속적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7일 6,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3척을 현대중공업을 통해 발주하고, 초대형 유조선(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총 4,43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에 윤석정씨 임명

해양환경단체인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임병석)는 6월7일 일부 조직을 변경하고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정씨, 사무부총장에 김창묵씨를 임명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바다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기존 조직을 보강하여 좀더 활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일부 조직에 대한 개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해양수산청장,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윤석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향후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임 윤석정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1938년생으로, 전주고등학교, 연세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안전지

도과장, 포항해양수산청장, 목포해양수산청장, 국제해운 대표이사를 역임한 해운인이다.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98년 설립되었으며,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환경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매년 바다청소 및 주요하천 청소, 바다환경의 중요성 홍보활동 등 바다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오염 방제사례집’ 발간배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과 공동으로 ‘제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해양오염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방제대응조치를 분석하여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를 통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2003년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18건의 방제사례를 묶은 ‘해양오염 방제사례집’을 공동 발간했다.

사례별로는 국내사고는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최대 유출량을 기록한 광양항 정양호 침몰사고 등 16건(2002년 3건, 2003년 13건)이, 외국사고는 벵커 C유 6만여톤이 유출되어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스페인 연안 ‘Prestige’호 침몰사고 등 2건이 현장사진과 표를 이용하여 사고의 전 처리과정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그밖에 참고자료로 지난 84년부터 2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현황이 표와 그림으로 분석돼 있다. 사례집은 비매품으로, 조합 홈페이지(www.kmprc.or.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팀 : 02-3498-8581-4)